

공무국외여행심사회의록

안 건	1. 공무국외여행계획안 1	
회의일시	2017. 10. 19.(목) 14:00 제2회의실	
심의위원 (7 명)	참 석 (7명)	비고
	위원장 이명원	불참위원 없음
	위원 서정학 김정욱 홍순헌 김재선	
	이은경 문정란	
	간사 이재온	
	사무직원 정연욱	
의결결과	속기사 오미선	원안가결

1. 공무국외여행계획안

○위원장 이명원 (14시 09분 회의시작)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회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장 이명원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수는 해운대구가 직면하고 있는 교통, 복지, 관광 등의 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의원 개별적으로 관심 분야를 선정하여 방문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교환과 회의를 거쳐 이번 심의회회의에 3개 팀이 구성되었고, 12월에 팀이 추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을 상정하였으므로 지금부터 타

당성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은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재온

반갑습니다. 의정팀장 이재온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목적 및 추진방향입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교통, 복지, 관광, 센텀산업단지 등 해운대구 현안 사항을 연계하여 보다 나은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대로 개별 출발을 원칙으로 하여 의원 각자의 관심사항을 반영한 연수단을 구성하였습니다. 10월과 11월에는 3개 팀 12명이 연수를 떠나게 되며, 12월에 3~5개 팀이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획서를 제출한 3개 팀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홍콩, 대만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단은 이명원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의원 7명,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25일 출발하여 11월 1일 도착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홍콩은 아시아 대표 관광도시로서 관광자원과 상권 활성화 추진 현황 등을 파악하여 구정 접목 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빅토리아 피크 등 자연물을 활용한 관광자원 조성방안, 소호거리 상점가 구성 현황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대중교통 시스템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국가로서, 바다와 온천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사례와 사회복지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101타워 전망대, 양명산 온천 등 우리 구에 접목 가능한 관광자원을 견학하고, 스린야시장 등 상권 활성화 방안 및 노인인구 증가 대책 마련을 위한 노인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자는 김삼수의원입니다. 10월 31일 출발하여 11월 5일 도착하는 일정으로 방문지는 도쿄, 오사카, 교토 등입니다. 우리 구 반여, 반송, 재송 지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사례를 발굴하고자 교토대학의 사업 담당자를 만나고, 현장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일본의 정책을 알아보고자 오사카 대학도 방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습 체증을 겪고 있는 해운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철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연결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자는 김정욱의원입니다. 11월 12일 출발하여 11월 20일 도착하는 일정일 예정입니다.

주요 방문지는 실리콘밸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운대구는 제2센텀 시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트렌드가 스타트업 기업을 통한 창의적인 벤처기업의 육성입니다. 우버, 에어비앤비 등 세계적인 혁신기업의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를 방문해서 해운대구에 스타트업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방문지로는 에어비앤비, 우버, 넷플릭스 등 세계적 기업과 스트라티오 같은 한인 기업 등이며, 컨퍼런스(conference) 참여를 통해 최신 경향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수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연수에 따른 연수경비 산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6규정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2항 및 별표2규정에 따라 산출했으며, 환율은 10월 11일 자 기준으로 1달러당 1,155원이 됩니다.

경비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당초 편성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되며, 부족 예산은 자부담하게 됩니다.

연수효과에 대해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수결과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9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연수는 의원들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가다 보니까 시험적인 연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있고, 이 연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의혹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고, 의원들께서 놓치고, 또 계획안에서 빠진 미비한 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위원님!

○김재선 위원

지금 잠시 들었고, 사전에도 소스를 조금 받고 왔는데, 원래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목적은 우리 해운대구에서 의정 생활을 하시면서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여러 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의 흘러가는 것, 이런 것을 벤치마킹, 아니면 담아올 수 있는가 싶어서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항상 구 직원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단체로 함께 움직이셨을 때 부족함이 있으면 저녁에 다 돌고 오셔서 체크를 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체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플레이가 되면 혹시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제시할 거라든가, 또 분야별로 봐야 될 것에 대해서 물론 혼자서도 다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혼자서 움직이는 것은...

저 또한 혼자 여행을 많이 가고 하지만 그것은 저 혼자서 말이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떠한 소홀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원래 생각한 연수의 의도에서 좀 어긋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면의 우려까지도 다 착안하시고, 이렇게 개개인의 연수로 하셨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의원들께서도 우여곡절[迂餘曲折]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초에 의장님께서 도전적이고, 시험적으로 개개인의 1인 원칙을 천명하셨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금 김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국외연수의 효

울성을 높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개별적으로 하기 힘든, 능력이 좀 부족하신 의원님들도 계셔서 충분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번에 보시다시피 1인이 가는 스케줄이 2개가 나왔고, 단체 그룹으로 만들어진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 한 의원님들이 남아 있어서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오늘은 3개 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에 2차 공무국외연수를 계획하고 계신 의원님께서서는 아마 이번 계획안을 참조하셔서 좀 더 좋은 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정란위원님!

○문정란 위원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심의 자료와 설명을 들었을 때 이 연수의 목적과 그다음에 개개인 의원님들의 관심 분야에 맞게 그것을 말로 또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겨서 이런 연수를 기획한 게 저는 일단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수 목적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부연설명이랄까, 보완만 조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으로 이 연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만, 홍콩으로 가시는 경우의 내용을 보니 상권 활성화를 파악해서 구정에 접목한다는 연수의 목적이 있으시던데, 저는 요즘 TV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변잡기적인... 그거 있죠?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경주가 사실은 지난번에 지진이 몇 번 남으로 인해서 유명도시가 됐었다가 ‘알쓸신잡’ 코스 중의 하나로 나오고 난 뒤에 지금 거기에 교리김밥 하나를 사러 가는 데 3시간의 교통체증을 거쳐서 가니까 김밥이 다 떨어지고 없어서 결국 그냥 돌아왔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TV프로그램에 한 번 의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낼지는 우리 구청의 숙제가 아

닐까 생각을 하고, 스토리텔링은 하기 나름입니다. 부산은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계곡도 있고, 이렇게 좋은 도시가 세계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프로그램 등등과 함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물론 상권 활성화와 관련돼서 약간 디테일한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챙기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성, 보통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성향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덧붙여서 대중교통 시스템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통영 같은 경우에도 ‘알쓸신잡’에 나오고 난 이후로 도심을 관통하는 데에만 2시간씩 걸린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할 정도의 상황에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교통 시스템은 정말 챙겨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고층 빌딩의 우려한 도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집지역의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부분은 가서 꼭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한 가지, 이 중에서 아까 대만, 홍콩의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신다는 내용도 있던데, 일본은 하프웨이(half way)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중간 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병원은 아니고, 집도 아닌 그런 중간시설에서 노인들이 전부 요양원, 이런 데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보신다면 실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을 훈련시켜주는 그런 시설인데, 완전히 노인으로 수발만 받게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아니죠. 반대의 개념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 노인복지시설에도 이제는 들어와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프웨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 부분들을 만약에 보실 수 있다면 가지고 오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세금이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한 사례, 이런 부분은 기획을 참 잘하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습니다. 고령화에 대비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도심 프로젝트가 의원님이 계시는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 숙제를 생각하실 텐데, 저는 사실 해운대의 을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실 수 있다면 일본의 나오시마 섬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간 김에 사비를 들여서라도... 거기는 살아 있는 예술 섬입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이우환 화백의 미술관도 있는데, 나오시마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거기에서 사셨거든요.

그런데 해운대를 생각할 때 자꾸 을지역이 낙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낙후하기 때문에 개발의 여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개발을 자꾸 상업적인 지금 현재의 모습대로 개발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좀 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품격 있게, 그리고 예술적으로 정말 값지게 누구나 가고 싶은 곳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일단 지역이 넓지 않을까?

그래서 넓은 그런 지역들을 기획해서 예술적인 벤치마킹의 사례들을 보고 오시면 어떨까, 저는 재생이라는 것이 똑같이 먹고사는 그런 모습으로만 만들기 위해서 재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한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를 말씀하셨는데, 일자리하고 먹거리를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도 창업을 하도록 해 주는데, 그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고 그 친구들을 던져놓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동 책방골목에도 1인 서점, 이런 친구들이 창업을 했는데 실제 그 이후에 그 일들이 연계되는 과정에서 일부 지원금 외에는 모든 것을 그 청년 혼자서 다 떠안아야 되다 보니 일이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의 소규모 점포라도 본인이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한 숙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얼마 전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청년이 창업을 하든,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든, 이런 도전을 할 때에 있어서 한 번 도전을 하고 나면 다시 재기가 안 되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는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하는데, 수도 없이 창업을 했다가 실패를 하지만 또 창업을 하는 것이 재기가 가능한 구조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여러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키면 재기가 가능한지, 도전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한 뒷일 걱정을 안 하고 자기의 미래가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체불자, 신불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본인이 꿈꾸는 미래로 도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담보시켜주는 시스템을 좀 보고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원

김삼수의원님, 문정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적어놓으셨죠?

○김삼수 의원

예, 다 적어놨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김정욱의원도 다 적어놓으셨죠?

○김정욱 의원

예.

○위원장 이명원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대만의 교통과 스토리텔링에 대해 말씀하셨고,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하프웨이 시스템도 말씀하셨고, 일본 나오시마, 미국의 창업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 금과옥조[金科玉條] 같은 말씀입니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홍순헌 위원

저는 앞서 두 분께서 워낙 상세하게 잘 말씀하셔서 뭘 보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년을 걸쳐서 그 얘기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딱 와 닿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 나오시마는 이번에 교토나 도쿄를 선택한 것보다는 나오시마가 혼자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코스이고, 또 나오시마는 과거에 생활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재생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문화가 살아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거쳐야 될 여러 가지들을 학습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시마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의장님의 의견대로 ‘이번에는 제도

개선을 한번 해 보자.’ 라는 의미로 개별 고민도 해 보시고, 또 단체 고민도 해 보시고, 또 소 단체,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게 진짜 진정한 연수냐?’ ,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것은 평생 가도 바뀌지 않을 것이고, 또 평생 가도 언론에서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도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20명도 안 되는 의원님들이, 그리고 해운대구를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의견 일치가 안 돼서 몇 시까지 모이라고 하면 그 시간도 못 지킨다는 것은 연수가 아니거든요. 그냥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놀러가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가이드가 ‘몇 시까지 오십시오.’ 라고 하면 딱 몇 시까지 모이고, 사실은 그런 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개별로 간다고 해서 효율성이 있고, 단체로 가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체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틀이 국외연수잖아요? 그러니까 국외연수에서 구의회는 개별의 차원이 아니라 구의회 자체의 차원으로 기획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체가 맞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는 타이틀이 국외연수가 아니고, 선진지 견학으로 처음부터 진행이 됐던 적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명원

아닙니다. 국외연수입니다. 정식 명칭입니다.

○홍순현 위원

그래서 저는 외유성 문제가 항상 걸리니까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는데, 연수하고 그다음에 문화탐방으로 나눠서 처음부터 방향을 잡아서 가면 매를 조금 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수를 1박 2일만 딱 잡고, 나머지는 문화탐방으로 하면 아주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칙대로 처음부터 준비를 할 때 1박 2일은 연수, 그다음에 나머지는 문화탐방... 문화탐방은 개인이 갈 수도 있고, 팀을 짜서 거기에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위원회별로 갈 수도 있고, 가기 전에 그 지역에...

만약에 홍콩에 가면 문화관광위원회는 문화관광을 보기 위한 홍콩의 어느 지역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 교통은 교통 쪽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아니다. 나는 그래도 나 혼자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 그때는 개인별로 가도 제가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 회의에 한 다섯 번째 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는 것을 보면 의원님들이 말을 참 안 듣기는 안 듣습니다.

(장내 웃음)

죄송한 이야기고요.

○위원장 이명원

오늘 홍순헌위원님께서 질책의 시간을 가져주셨는데, 잠깐 변론을 좀 한다면 시스템상의 문제이고, 또 타이틀도 공무국외연수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탐방과 연수로 분리해서 실제적으로 시행은 할 수 있지만 문화탐방을 표면적으로 내놓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헌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수는 연수답게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1박 2일이면 1박 2일, 그대로 하시고 거기에서 오히려... 사실은 도청에 가봐야 볼 게 뭐 있습니까? 갔다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서로 컨택(contact)해서 도청의 재생팀장을 부르든지, 초청하든지 해서 그 연수장에서 서로 토론도 하는... 그러니까 보는 것은 개별적으로 가서 해도 좋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는 갔다 오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보고서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또 공무원들만 잔뜩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리콘밸리 갔다 와서 팸플릿만 가져다 줄 거 아닙니까? 사진만 찍어다 주고...

○위원장 이명원

홍순헌위원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홍순헌 위원

있으면 안 되겠죠?

○위원장 이명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김삼수의원님하고 김정욱의원님께서는 홍순헌위원님의 지적을 명심하시고요.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사무국에서는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넘긴다든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욱 의원

자체적으로 쓰기로 돼 있습니다.

○홍순헌 위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써서 의회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홍순헌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공무국외연수와 관련된 딜레마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딜레마를 조금 더 해결하고 접근해보기 위한 용감한 시도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헌 위원

예, 저는 평가는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김재선위원님!

○김재선 위원

딜레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새로운 시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명원

예.

○김재선 위원

두 분이 개인적으로 가신다는 거, 제가 보면서 250만 원을 받아서 일본은 괜찮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갈 겁니다.

○위원장 이명원

맞습니다.

○김재선 위원

그런데 제가 잠시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맨 처음에 그랬

죠, 목적이 잘못될 수도 있다. 원래 해외연수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단체로 가서 각자 보고, 그날 저녁에 만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논하는 것이 연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달라졌으니까 한번 ‘잘 되겠습니까?’ 하고 여쭙봤죠.

그런데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김정욱의원님하고 김삼수의원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많은 개인 돈을 출연하면서 간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저도 11월 9일에 크루즈 여행으로 남미에 가는데, 물론 일을 할 때는 일을 하지만 1년에 두세 번 여행 갈 때가 참 좋을 때예요.

그러면서 그냥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개인적이라서 연수는 아니지만 많이 보고 배우고 오거든요. 아까 나오시마를 말씀드렸는데 본 대로, 느낀 대로 남한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그런 나오시마의 문화... 그러니까 안 가 봤으면 이야기를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외국에 많이 가면 다 보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만과 홍콩에 여러 의원님들이 가시는데, 물론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김정욱의원님과 김삼수의원님이 개인적으로 가시는 것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미국에 가서 많이 보고 오시면서 ‘이것이 하나의 이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좋은 이야기를 담아 오셔서 우리 해운대구에 보완이 된다면 또 내년 연수...

이것은 계속 있을 거니까... 아까 연수 때마다 딜레마에 빠진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 두 사람씩 가더라도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벤치마킹이 되든지, 아니면 해운대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나오면 다음에 또 이례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음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의 첫 시도에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쉬운 숙제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잘하셔서... 다음에 또 몇 분이 개인적으로 간다면 하나의 자료가 영원히 남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원래는 단체이지만...

○김정욱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아까 문정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재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토리텔링을 위한 실마리, 클루(clue)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교수님!

○이은경 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아주 디테일(detail)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사실 저는 이번에 개별적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외유성의 문제가 있었고, 지난번에도 충북도의원들이 홍수가 났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문제가 돼서 구의회에서 딜레이(delay)가 한두 번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고심이 많았을 거고, 또 나름대로 매년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해운대구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정말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까 하는 고민들을 의회에서 많이 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삼수의원님하고 김정욱의원님은 더더욱 책임감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으로 개별적으로 1인 연수로 하시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12월에 3~5개 팀이 움직일 때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차후에 국외연수를 갈 때도 ‘정말 이것이 참 효과적이었다.’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야지만 다음에라도 ‘아~ 우리가 다음에는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이런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중한 부담을 갖고 출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연수라는 것이 개별적으로 가셔셔도 많은 것을 체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지만 어떤 한 장소에 가서 문화적인 체험을 하든, 어떤 것을 보실 때도 받아들이는 부분이 각인각색[各人各색]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재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녁에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피드백이 돼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인이 가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을 때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볼 때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저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두 의원님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마음을 갖고 출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연수목적이나 또는 여러 가지 보시는 것은 많은데, 제가 볼 때 미국 쪽은... 우리 해운대는 관광 쪽으로 특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 벤처기업들의 견학을 통해서 센터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지, 그 방안들을 논의해서 클루(clue)를 찾아내시는 단계이니깐 이 기간 동안에 혼자서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요.

일본도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면 사실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게 한 4일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보니까 김삼수의원 혼자서 도시재생에 대한 거, 고령화 대비, 도심 개발프로젝트 등 너무 다양한 것들을 혼자서 하신다는 게 쉬울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체험하고 오셔서 의정활동에 이것이 유익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디테일한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봤는데, 광주의 전통시장인 송정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정말 의미 있게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하고, 구 차원에서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대만 쪽에 갔을 때 전통시장인 스린야시장도 가시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청년들이 좀 더 전통시장과 매칭돼서 문화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관광문화도시인 해운대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더 탐방을 해 주시고, 또 경험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김삼수의원은 본인 주도하에 중구하고 사상구의원들과 함께, 그러니까 연수를 3명의 의원이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아주 주도적으로 하셨고, 우리 김정욱의원께서는 우리 의회가 내건 개인, 1인 연수의 취지에 맞게끔 또 1인으로 도전해 보셨고요. 그래서 아마 김정욱의원님께서 가장 큰 부담을 갖지 않을까 싶은데...

김삼수의원! 이은경위원님의 고민과 걱정을 좀 덜어주신다는 의미에서 준비된 것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김삼수 의원

일단 많은 관심과 우려를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제가 이것을 계획했던 이유는 제 지역구 자체가... 저는 재송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텀시티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아주 오래된 정책이주지역도 포함이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분별적인 개발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것은 이제는 시대적인 상황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장기적인 것을 봤을 때 인구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현재 가지고... 앞서 문정란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 박사과정 논문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참고해 볼 만한 자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교토 쪽이나 오사카 쪽은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로 많이 볼 계획이고, 도쿄 쪽은 무분별한 개발들이 낳은 불편한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볼 것이고, 오모테 산도 힐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게 한 그런 사례들로 많이 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로 많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같이 가는 의원님들도 중구의 영주동이 지역구이신 분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사상구의 덕포동 쪽이 지역구이셔서 저희 지역하고 상황이 비슷하고, 또 관심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3명이 가서 충분히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마라는 곳은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혹시나 일정을 조정해서 갈 수 있으면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 위원

오사카로 가면 오사카에서는 갈 수 있어요.

○김삼수 의원

가깝다면 아마...

○김재선 위원

가까운 건 아니에요. 버스로 3시간 걸려요.

○김삼수 의원

3시간이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원

아마 김삼수의원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계획하고 있는 것을 1시간도 더 말
씀드릴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줄여주셨고요. 김정욱의원님도 혹시 우리 위
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김정욱 의원

그렇죠.

○위원장 이명원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김정욱 의원

역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건과 좋은 말씀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다 적어놨는데, 꼭 실천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는 창업 위주라고 써놓으셨는데, 물론 주된 일정은 벤처캐피털리스
트든지, 우수한 벤처기업들 탐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라든
지, 우버라든지, 테슬라, 넷플릭스 등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저는 우리
해운대는 부산하고 떨어져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지역구 안에 있는 해운대 센텀 쪽에 부산시의 문화와 경
제에 관한 주요 기관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생각은 항상 해운대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산, 울산, 창원이 같이 어
우러지는... 벨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벨트가 형성돼서 같이 움직여야
지, 해운대와 부산이 발전할 수 있고 일자리도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병수시장님도 첫 번째 슬로건으로 내건 게 일자리이지 않
습니까? 그런데 일자리라는 게 그냥은 잘 생겨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
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기업들이
부산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좋은 여건인데...

아까 문정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은 진짜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가장 많이 감소하고 있고, 또 노령화도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인구들은 대학교를 졸업하면 다 서
울로 올라가서 직장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치권의 행정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알아야 될 게 거시적인 계획을 마련하려면 일단은 좋은 생태적인...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대기업들이 본사나 지사를 부산에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벤처기업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미국 서부를 생각했던 게 우리 부산, 울산, 창원, 마산 이 쪽도 바다를 끼고 있는 큰 도시인데, 미국의 시애틀부터 샌프란시스코, 산호세까지... 실리콘밸리라고 명명하는 지역들이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산호세도 왔다 갔다 계속...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우버,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있는 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컨퍼런스가 있는 여러 도시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갔으면 했는데, 만약에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흥미가 되신다면 내년에는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위원장 이명원

예, 정리...

○김정욱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국제관광 비즈니스 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선택해 보았고, 또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을 선택해 봤습니다. 단지 스타트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 나름대로 구성해 본 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원

김정욱의원도 갔다 오셔서 보고서를 멋지게 쓰셔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면 좋겠습니다. 혹시 처음으로 말씀하신 문정란위원님, 더...

○문정란 위원

정말 다 듣기 좋고, 의견들이 너무 좋으셔서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을 꼭 이렇게 가을에 기획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왕 1인으로 출발하시고, 1인 투어(tour)를 하신다면 미리 일정을 잡아서...

○위원장 이명원

예, 가능합니다.

○문정란 위원

제가 생각할 때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홍콩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그게 1977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4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전문 영화인들의 플랫폼을 형성하는 영화제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영화제에서...

그런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를 가지고 왈가왈부[曰可曰否]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시기에 맞춰서 만약에 홍콩에 가신다면 실제로 영화제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를 보시면 영화제의 시스템 같은 것들을 벤치마킹하시기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컨퍼런스 시간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셨듯이 이런 일정들이...

예를 들면 세계전자축제, 이런 게 있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렉트로닉스(electronics), 그런 부분들이 선도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그런 시즌을 선택해서 가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 시도를 하신 김에 앞으로는 그런 시즌도 맞춰서 가시면 훨씬 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홍순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17일에 김정욱의원이 가는 그 코스로 가기 때문에 제가 구민으로서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정욱 의원

17일에 어디로 오십니까? 알겠습니다.

○홍순현 위원

LA로 갑니다.

○위원장 이명원

이은경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은경 위원

예.

○위원장 이명원

김재선위원님!

○김재선 위원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위원장 이명원

그러면 홍순헌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리의 한 말씀 해 주시죠.

○홍순헌 위원

예.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어차피 언론이 사회의 주도적인 말들을 거의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마는 너무 의식하지 말고, 의회가 한 번 결정을 했다면 과감하게 다녀오시고, 또 거기에는 43만 구민이 우리 의원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도 항상 생각하시면서 제대로... 저는 부탁할 것은 양심껏 제대로 다녀오시면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위원장 이명원

고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사실은 오늘 서정학위원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취지가 1인 연수였지만 이렇게 소그룹으로 만들어진 계기가 서정학위원님께서 1인 연수의 단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소그룹이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서정학위원에게)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제가 치하만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의원들이 사고를 좀 바꿔 달라 하는 부탁도 하셨고, 외유보다는 연수에 신경 쓰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나오시마라든지, 광주의 송정시장이라든지, 좋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2차 심의 때 심의를 받으실 의원님들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원

예, 한 말씀 하세요.

○서정학 의원

늘 할 때마다 새롭게 느낌을 받는 부분이 와 달는데, 이번에도 놓친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느끼는 바가 있는데,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대중교통 시스템이나 관광지, 이런 쪽으로 접목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연수를 가서 행정부하고 의회의 소통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야말로 관광지의 교통 정책은 어떻게 해소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그 두 가지는 꼭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낱알이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그래도 마음속에 다질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문정란위원 손을 들다)

예, 말씀하십시오.

○문정란 위원

저는 서정학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깐 너무 기쁩니다. 저는 과연 정치인이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늘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기쁘네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원

여기에 위원들이 네 분이 계신데, 한 사람만 칭찬하면 또...

(장내 웃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종료)

※ 참고사항

의 석 배 치 도

(2017. 10. 19.)

위원장
이 명 원

사무직원

서 정 학

김 정 욱

문 정 란

홍 순 현

김 재 선

이 은 경